

#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의 전후를 중심으로 -

송만익\*\* · 이수철\*\*\*

(e-mail: mesong@hanbat.ac.kr · suchul@gmail.com)

---

## 目次

---

1. 들어가기
  2. 한국의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역사
  3. 2009개정교육과정의 개관
  4. 전국 고등학교 일본어교사 대상의 실태조사
  5. 나오며
- 

## 1. 들어가기

지금의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을 위기라고 한다. 그 주요 원인의 하나가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중등학교의 일본어 학습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2009개정교육과정이 글로벌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의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영역의 국·영·수 중심의 교과편성 및 운영의 개연성과 제2외국어의 생활·교양 영역화와 「집중이수제」 등으로 인해 일본어 교과의 축소 혹은 경시되는 현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일본어교육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역사와 2009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파악한 후에, 201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09개

---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한밭대학교 교수 일본어교육학

\*\*\* 대전 신일여고 교사

정교육과정의 운영현황을 각종 자료와 함께 전국의 고등학교 일본어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일본어교과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나아가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제고에 이바지하리라 본다.

## 2. 한국의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역사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이 공교육에서 시작된 것은 196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일본어과가 설치되면서부터이지만 고등학교는 1973년에 대일 문호 개방 등의 영향으로 제2외국어과목으로 일본어교과가 개설되었다. 개설이후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역사를 교육과정과 선택 학생 수, 대학입시 관련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1] 한국의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역사

年	일본어교육 사정	비고
1973	제2외국어교과로서 일본어 개설	제2차교육과정에 추가됨. 130개 고교가 일본어를 채택
1974	제3차 교육과정 시행(일본어 최초의 교육과정)	일본어의 4기능과 우리 문화의 소개능력 신장이 중심
1976	대입 예비고사의 외국어 선택과목에 일본어 포함	기존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가 있었음
1982	제4차 교육과정 시행	일본어 사용능력 향상과 일본 문화 이해를 통한 우리 문화 발전이 목표
1986	대입 예비고사의 외국어시험이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로 분리됨	제2외국어 중 수험생의 41.7%가 일본어 선택
1988	제5차 교육과정 고시	의사소통의 중시와 함께 일본어의 4기능의 신장을 중시
1992	제6차 교육과정 고시	언어의 정확함보다 유창함을 강조하고 이해와 표현기능의 2분법을 채택한 것이 특징. 제2외국어 중 일본어의 선택이 인문계에서는 독일어 다음으로 2위(27%), 실업계에서는 1위(87%)
1994	대입 예비고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경	일본어 등 제2외국어과목 전체가 수능에서 제외됨. 서울대의 제2외국어 선택에서 일본어 제외.
1997	제7차 교육과정 공포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문화이해 중심이 특징. 2학년에서 일본어 I 을, 3학년에서 일본어 II 를 교

		육. 제2외국어 중 일본어의 선택이 인문계에서도 독일어를 제치고 1위(39%), 실업계는 88%의 1위. 중학교의 재량선택교과로서 개설됨.
1998	제1차 일본문화 개방	2002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등의 영향에 힘입어 2004년 제4차 개방으로 전면 개방됨.
2000	대입 수능에 일본어등의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부활됨	2005년 입시부터는 한문이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같이 취급됨. 선택과목이라는 점과 각 대학에서의 입시전형시의 홀대 등으로 수능 점유율이 점점 낮아짐
2007	2007개정교육과정 공포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의 상호이해와 정보 활용 능력 중시가 특징
2009	2009개정교육과정 공포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조정으로 고교 1학년 부터 선택교육과정이 적용됨.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 1학년부터 배울 수 있음.

### 3. 2009개정교육과정의 개관

#### 3-1 목표 및 기본 방향

2009개정교육과정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여 다음 네 가지 기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 및 학습효과
- 2)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 3) 고교 교과 재 구조화를 통한 핵심 역량 강화
- 4) 교육과정의 편성 자율권 확대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 3-2 주요 내용 및 특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재 구조화로서 4개 교과영역과 8개 교과(군)로 구성하고, 그 단위 배정 기준을 [표2]와 같이 정하였다. 총 이수단위가 204단위로, 그 중 교과는 180단위(필수 116단위, 학교 자율 6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이다.

[표2] 2009개정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20)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b>총 이수 단위</b>			<b>204</b>		

○ 필수 이수 단위의 ( )안의 숫자는 특성화, 특수목적, 예체능계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단위임

2)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학년군, 교과군 개념을 도입하여 집중 이수제를 실시한다. 즉, 한 학기당 평균 11-13과목 이수하던 것을, 8개 이하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과목 수의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의 경감과 동시에 해당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부의 2009개정교육과정의 일부 수정으로 인하여 예체능 교과에 한해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하기로 함)

3) 상기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되었다. 이는 직전 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그 하위 영역으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편성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즉, 교과군, 학년군 도입과 함께 교과군의 기준 시수의 20% 증감 운영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통 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 별 필수 단위 수만 지정한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학생이 각자의 진로를 고려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학습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조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교육과정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 2학년부터 배우던 것을 1학년부터 배울 수 있게 되었다.

6) 제2외국어를 [표3]과 같이 생활·교양 영역에 편성하였다.

[표3] 고등학교의 생활·교양영역

생활· 교양	기술· 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경영 일반, 해양 과학, 정보
	제2외 국어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베트남어 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 성장

생활·교양영역에서 교과(군)의 과목과 상관없이 16단위(전문계 12단위)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2외국어는 교과편성 자율권에 의해 개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제2외국어의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제2외국어, 기술·가정, 한문, 교양 과목 간에 단위 수 확보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3-3 직전 교육과정(2007개정 교육과정)과의 주요 차이점

직전 교육과정인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4]과 같다.

[표4]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구분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1 교과 필수</li> <li>· 총 이수단위 210단위</li> <li>· 학기당 이수 과목 수 11-13과목</li> <li>· 교과: 외국어(영어)</li> <li>· 비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정의 모든 교과 선택</li> <li>· 총 이수단위 204단위</li> <li>· 학기당 이수과목 수 8개 이하로 편성</li> <li>· 교과: 영어</li> <li>· 비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으로 시수 확대</li> </ul>

이상,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관해 보았다.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집중이수제의 도입, 4개 교과 영역별 8개 교과군의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재편,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일본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교과의 생활·교양 영역화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환경에서 최근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지난 5월에 발표한 2013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사전 예고이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사전 예고에서 일본어교과의 교원선발 인원이 전국에서 단 1명도 없게 되었다. [표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이런 경우가 없었다.

[표5] 연도별 중등학교 일본어교원 모집 인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모집인원(명)	95	52	69	65	70	43	10	24	0

임용고사를 준비하던 많은 수험생들을 비롯한 사범대 일어교육과 등의 관련 일본어교육 관계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한 위축된 중등학교 일본어교육 환경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다음의 제4장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일본어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일본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체감 정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실제적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 4. 전국 고등학교 일본어교사 대상의 실태조사

### 4-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전국의 현직 고등학교 일본어교사(기간제 교사 포함)를 대상으로,

구글 독스를 활용하여 작성된 28개의 설문 문항을 e-mail이나 QR코드를 사용하여 응답게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 7.16 - 2012. 9.15까지 이며, 전국에서 일본어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1017개교, 2282명의 일본어교사(교육통계연보, 2012년) 중, 1교 1교사 원칙으로 설문에 응하게 한 결과, 258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응답자의 비율은 전국의 일본어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교 중 25.4%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의뢰 및 회수 방법은, 조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의 성격상 공적기관을 통한 공문행위 등에 의한 조사가 어려워, 전국 중등 일본어 교사의 연구단체인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의 각 지역별 회장단의 협조와 본 조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행하였다. 통계의 비율(%) 처리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응답률 25.4%, 신뢰도 95%, 오차의 범위  $\pm 5\%p$ 이다.

#### 4-2 설문응답교사의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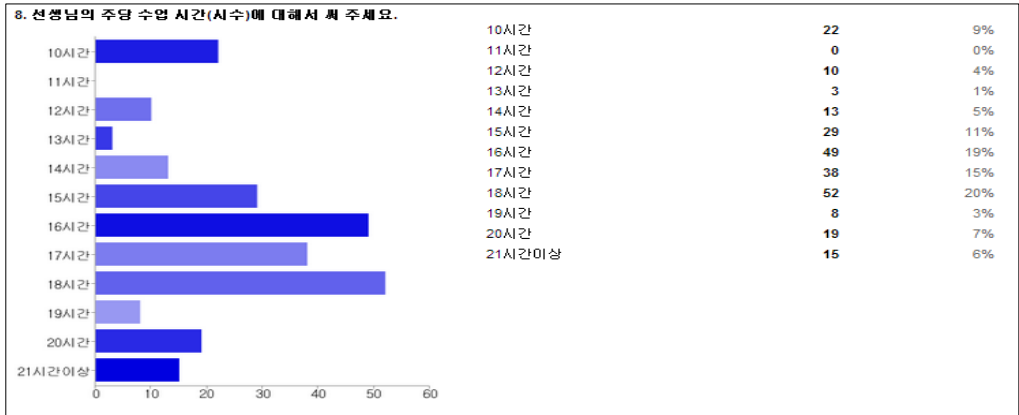
- 1) 교사의 성별: 여성 162명(63%), 남성 96명(37%)
- 2) 교사의 교육경력: ①1~5년미만 22명(8%) ②5~10년미만 50명(19%) ③10~15년미만 48명(19%) ④16~20년미만 18명(7%) ⑤20~25년미만 63명(24%) ⑥ 25년이상 57명(22%)
- 3) 근무지역: 경기55명, 경북33명, 서울25명, 대전27명, 인천22명, 경남21명, 전남15명, 강원14명, 전북13명, 대구10명, 충북9명, 광주5명, 부산4명, 울산3명, 충남1명, 제주1명
- 4) 근무학교의 공사립구분: ①공립 169명(66%) ②사립 89명(34%)
- 5) 근무학교의 구분: ①일반계고 212명 (82%) ②전문계고 36명(14%) ③특목고 10명(4%)
- 6) 교사의 신분: ①정규교사 255명(99%) ②기간제교사 3명(1%)

설문응답교사의 인적사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 네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응답교사의  $\frac{3}{5}$ 가 여성이고,  $\frac{1}{5}$ 이 남성이다. 둘째,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사가 46%로 약 절반에 가깝다. 셋째, 공립고교 교사가  $\frac{2}{3}$ , 사립고교 교사가  $\frac{1}{3}$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일반계고교의 교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4-3 재직학교의 제2외국어 개설 관련 현황

- 1) 주당 수업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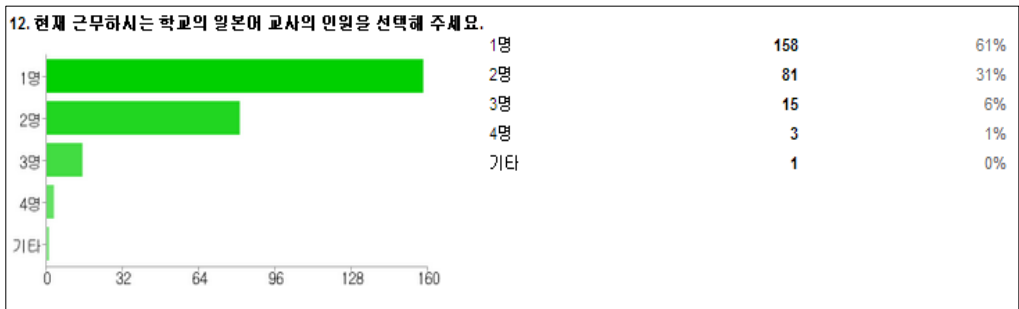
[표6] 설문응답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18시간(20%), 16시간(19%), 17시간(15%), 15시간(11%), 10시간(9%), 20시간(7%), 21시간(6%)의 순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18시간이 권장 수업시수로, 학교의 사정에 따라 2~3시수의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당 20시간이상에는 일본어 외에 중국어 등 다른 과목을 함께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10시간(9%)은 부장교사와 같은 보직교사의 경우이다.

2) 재직학교의 일본어교사 인원 현황

[표7] 재직학교의 일본어교사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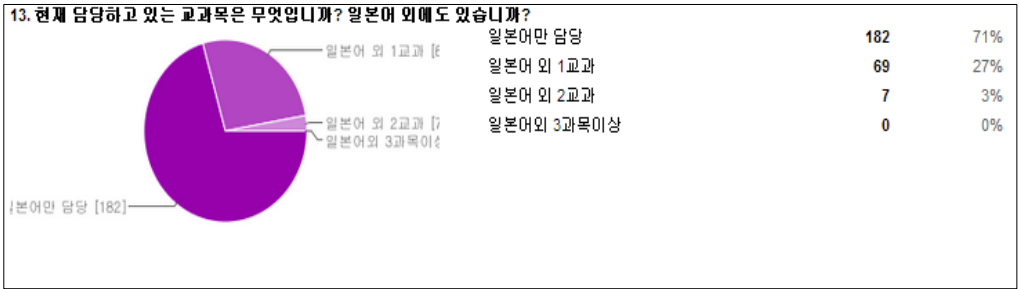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재직학교의 일본어교사 인원이 1명인 학교가 158개교(61%), 2명인 학교가 81개교(31%), 3명인 학교가 15개교(6%)이며, 4명인 학교도 3개교(1%)가 있었다. 일본어교사가 1명인 학교 158개교 중 105개교가 재직학교 유일의 제2외국어 교사로서, 일본어 외에 중국어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소 파악되었다. 3~4명인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



며, 국제고 및 외국어고등에서는 다수의 일본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재직학교에서의 담당교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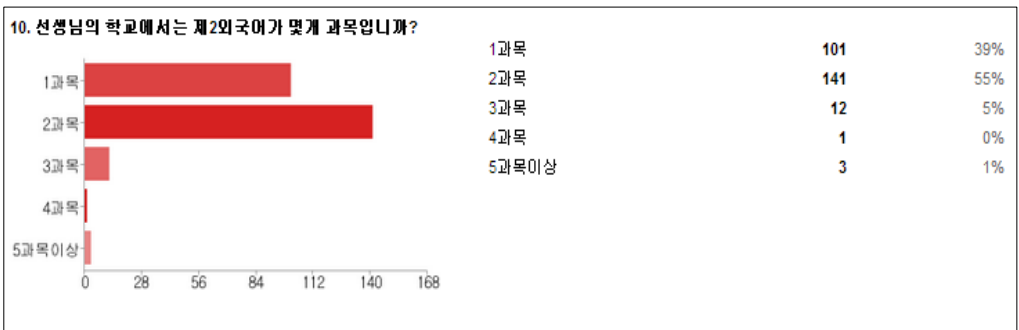
[표8] 재직학교의 담당과목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한 교사 중 일본어만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다수인 182명(71%)이고, 일본어외 1교과를 더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69명(27%), 일본어 외에 2교과를 더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7명(3%)이다. 일본어 외에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에는 중국어, 한문, 창의적 체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교사이면서 일본어 외에 다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76명(30%)이나 된다는 것은 학교 내의 일본어교과의 열악한 위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재직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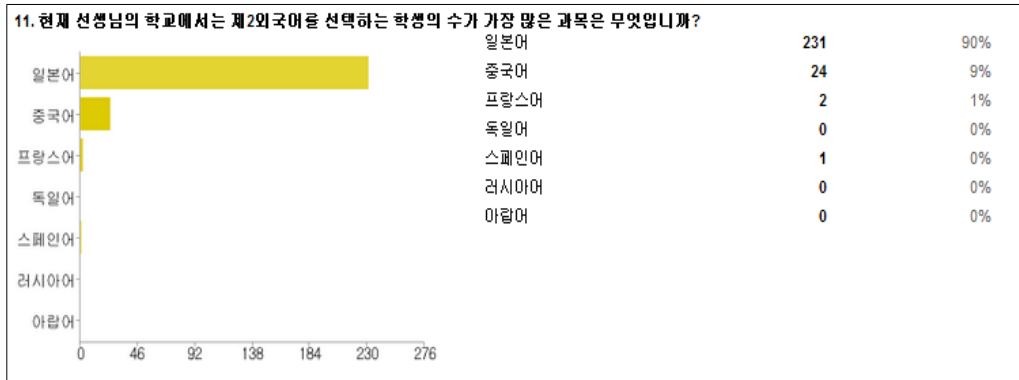
[표9] 재직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 수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제2외국어과목이 1개인 학교가 101개교(39%), 2개인 학교가 141개교(55%)로 대부분이다. 3개~5개 학교는 특수목적고인 국제고나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 5) 제2외국어 중 선택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목 현황

[표10] 재직학교의 제2외국어 선택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목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재직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 중의 선택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일본어이다. 231개교(90%)이다. 중국어가 그 다음으로 24개교(9%), 이어서 프랑스어 2개교, 스페인어 1개교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은 일본어를 많이 선택하는 학교가 다수이지만, 과거에 비해 중국어 선택이 일본어 선택보다 조금씩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중국의 부상과 한·일관계의 악재,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의 여파 등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본 설문에서의 중국어를 선택한 24개교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 중 인천은 차이나타운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의 교두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중국어 선호가 충분히 예상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면 교사인건비의 70%를 중국정부가 지원하고, 시군교육청이 30%를 인건비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쉽게 우수한 원어민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서울지역에서도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일본어학원보다 많은 중국어 학원, 학습지의 증가, 그리고 중학교의 생활중국어 과목 선택의 확대 등의 현상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다.

## 4-4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 전후의 제2외국어 개설 학급 수 증감 비교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012학년도 현재의 재직학교의 제2외국어의 개설 학급 수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 이전의 학급 수와 비교했을 때 그 증감의 현황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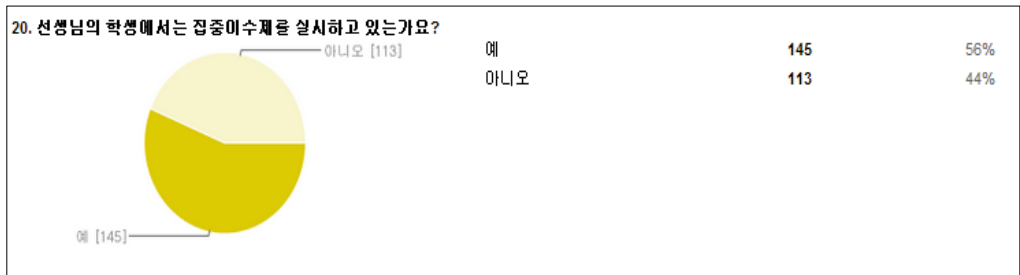
- 1) 일본어과목의 학급 수의 경우, 총 응답 238개교 중에서 증가가 26개교 (11%), 변동없음이 120개교(50%), 감소가 92개교(39%)로 나타났다.
- 2) 중국어과목의 학급 수의 경우, 총 응답 174개교 중에서 증가가 35개교 (20%), 변동없음이 99개교(57%), 감소가 40개교(23%)로 나타났다.
- 3) 독일어, 프랑스어과목의 학급 수의 경우, 총 응답 49개교 중에서 증가가 10개교(20%), 변동없음이 28개교(57%), 감소가 11개교(23%)로 나타났다.

일본어의 경우, 학급 수가 증가한 학교가 일부(26개교, 11%)있지만, 감소된 학교가 92개교(39%)로 증가한 학교의 약 4배에 이른다. 학생들의 일본어 선택의 급격한 감소가 뚜렷하다. 하물며 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중국어마저도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증가 35개교, 감소 40개교) 아마도 고교 3학년 까지 완전히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2013학년도 이후는 제2외국어 과목의 감소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2외국어를 확대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 4-5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

##### 1) 재직학교의 집중이수제 실시 여부 현황

[표11] 재직학교의 집중이수제 실시여부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145개교(58%)가 실시하고, 113개교(44%)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 과반에 가까운 학교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의외로서, 제도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아마도 실시 초기라서 학교 간의 눈치 보기 현상이 있는 듯 하다.

- 2) 집중이수제에 의한 「일본어 I」 과 「일본어 II」 의 개설 시기 및 주당 수업 시수
  - ① 「일본어 I」 에 대하여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145개교의 개설시기

및 주당 수업 시수를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표12] 집중이수제에 의한 「일본어 I」의 개설 학기 및 주당 수업 시수

「일본어 I」의 개설 학기	「일본어 I」의 주당 수업 시수
1학년 1학기: 63개교(43%)	주당 1시간: 0개교(0%)
1학년 2학기: 3개교(2%)	주당 2시간: 20개교(14%)
2학년 1학기: 67개교(46%)	주당 3시간: 41개교(28%)
2학년 2학기: 8개교(6%)	주당 4시간: 58개교(40%)
3학년 1학기: 4개교(3%)	주당 5시간이상: 26개교(18%)
3학년 2학기: 0개교(0%)	

집중이수제에 의한 「일본어 I」은 종래의 2학년 이후의 실시에서 1학년 1학기에 63개교(43%)가 새로이 개설되었고, 2학년 1학기에 67개교(46%)가 개설되었다. 종래의 국·영·수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3학년 때 많이 편성되었던 「일본어 I」이 저학년으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주당 수업 시수는 주 4시간이 가장 많고(58개교 40%), 주 3시간(41개교 28%), 주 5시간이상(26개교 18%), 주 2시간(20개교 14%) 순이다. 주 5시간 이상에는 국제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가 있다.

② 「일본어 II」에 대하여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는 76개교의 개설 시기 및 주당 수업 시수를 정리하면 [표13]과 같다.

[표13] 집중이수제에 의한 「일본어 II」의 개설 학기 및 주당 수업 시수

「일본어 II」의 개설 학기	「일본어 II」의 주당 수업 시수
1학년 1학기: 0개교(0%)	주당 1시간: 0개교(0%)
1학년 2학기: 2개교(3%)	주당 2시간: 21개교(28%)
2학년 1학기: 18개교(24%)	주당 3시간: 10개교(13%)
2학년 2학기: 26개교(34%)	주당 4시간: 31개교(41%)
3학년 1학기: 21개교(28%)	주당 5시간이상: 14개교(18%)
3학년 2학기: 9개교(12%)	

집중이수제에 의한 「일본어 II」는 전체 258개교 중 29%에 해당하는 76개교만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이다. 많지 않은 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설은 주로 2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사이에 끌고루 되어 있다.(2학년 1학기 18개교, 2학년 2학기 26개교, 3학년 1학기 21개교) 주당 수업시수는 주 4시간이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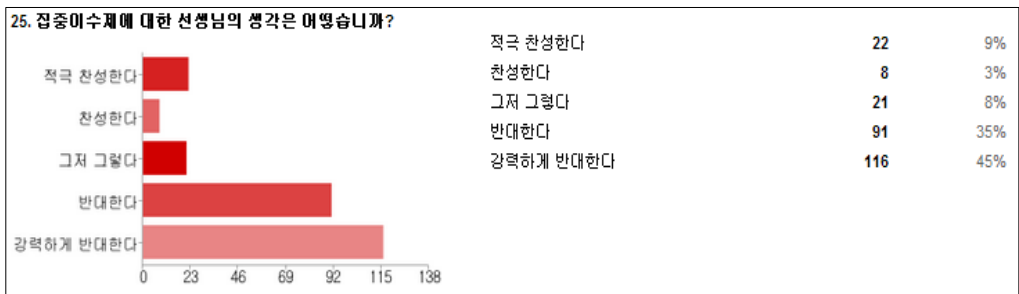
연 평균(31개교 41%), 주 2시간(21개교 28%), 주 5시간이상(14개교 18%), 주 3시간(10개교 13%)순이다. 「일본어 I」에 비해 주당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집중이수제에 대한 찬·반 여부 및 반대 이유

① 집중이수제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집중이수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 14]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14] 집중이수제 찬·반 여부



[표14]에서 알 수 있듯이, 2009개정교과과정의 집중이수제를 적극 찬성한다 22명(9%), 찬성한다 8명(3%)을 합쳐 30명(12%)이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116명(45%), 반대한다 91명(35%)을 합치면, 207명(80%)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의 주요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부담 경감과 학습효율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순기능을 우선시 한 긍정적인 생각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② 집중이수제 반대 이유 조사

반대 의견을 가진 207명(전체 응답교사 중 80%)에게 “집중이수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15]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15] 집중이수제 반대 이유

교과 간의 불균형과 불평 등을 조장하여 교과간의 우선순위가 더욱 확연히 나타나며 현장교사들의 교과간의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82명 (40%)
과목의 특성상 도덕이나 감성과 인성교육, 예·체능, 제2외국어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학습시키는 것은 학교교육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1명 (29%)

특정학기에 수업을 몰아서 학습시키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오히려 가중 될 수 있다.	29명 (14%)
대입 수능에 필요한 과목 위주의 편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28명 (13%)
기타	6(3%)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하나씩을 응답한 결과를 집계한 통계인 만큼, 항목 간의 정량적인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항목이 반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와 같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제도 하에서의 학교장의 재량권이 강화된 집중이수제 운영은 교과 간의 차별 등의 교과운영의 비교육적인 요소가 더욱 많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반대 의견으로는, 학교마다 학년별, 학기별 과목이 달라 전입생의 경우 중복이수 혹은 미이수과목이 생길 수 있다 등이 있었다.

#### 4) 집중이수제에 있어서의 일본어교과 운영의 문제점 조사

“집중이수제에 있어서 일본어교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표16]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16] 집중이수제에 있어서의 일본어교과 운영의 문제점

대입 수능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아닌 것으로 인한 학생의 집중력 및 학습의욕의 저하가 예상된다.	137명 (53%)
일본어교과의 생활교양영역화로 수업 시수의 축소 내지는 과목폐지가 우려된다.	78명 (30%)
학생들의 학습부담 과중으로 인한 수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34명 (13%)
시험출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3명(1%)
기타	6명(2%)

137명(53%)의 교사가 “대입 수능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아닌 것으로 인한 학생의 집중력 및 학습의욕의 저하가 예상된다.” 라는 강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일본어교과의 생활교양영역화로 수업 시수의 축소 내지는 과목폐지가 우려된다.” 가 78명(30%)이 선택을 했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 과중으로 인한 수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가 34명(13%)이 선택해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인한 학습의욕저하, 수업과목 축소 및 폐지의 우려, 수업효율성 저하 등의 부정적인 우려의 의견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 조사

“2011학년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 대하여 [표17]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17] 2009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의한 국·영·수 중심의 집중수업 운영의 개연성이 있다.	143명 (55%)
제2외국어의 생활, 교양영역화로 인한 제2외국어의 축소 내지는 경시현상을 볼 수 있다.	78명 (30%)
집중이수제의 시행으로 수업의 파행이 예상된다.	18명 (7%)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창의·인성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17명 (7%)
기타	2명(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의한 국·영·수 중심의 집중수업 운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답한 교사가 143명(55%)으로 단연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2외국어의 생활·교양영역화로 인한 제2외국어의 축소 내지는 경시현상을 볼 수 있다.”에 78명(30%)이, “집중이수제의 시행으로 수업의 파행이 예상된다.” 에 18명(7%)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교사가 일본어의 위축과 국·영·수 중심의 파행적인 집중수업의 심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집중이수제의 문제점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1)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과제 조사

“일본어과목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하여 [표 18]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18] 일본어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

대입 수능과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95명(37%)
제2외국어를 생활·교양영역에서 독립하여 외국어영역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78명(30%)
중학교 일본어와 고등학교 일본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59명(23%)
일본어교사와 일본관련 단체 및 대학들이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단합하는 것이다.	16명(6%)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를 하는 것이다.	8명(3%)
기타	2명(1%)

“대입 수능과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답한 교사가 95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2외국어를 생활·교양영역에서 독립하여 외국어영역으로 개설하는 것이다.”가 78명(30%), “중학교 일본어와 고등학교 일본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교사가 59명(23%)이다. 연계교육과 관련하여 중국어의 경우를 참고로 보면,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중학교 과정에서의 생활중국어 선택 학생의 증가 경향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계속교육 차원의 중국어 선택이 더욱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도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과 함께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계속연계교육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시급한 과제로는 소수이지만 일본어교사, 관련단체 및 대학들이 방관자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의 제도 개선의 요구가 16명(6%)이며, 자료개발 및 공유에 대한 요구도 8명(3%)이 있다.

일본어교육의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제도 개선과 교육의 내실 강화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수능과 각 대학 입시전형에서의 비중 제고와 교육과정에서의 일본어위상 회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일본어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중·고의 연계와 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 2)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조사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일본어교과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솔직한 선생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19]이다.

[표19] 일본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순위	활성화 방안	인원	비율
1	대입수능반영, 내신반영, 필수과목화, 외국어과목군 편성, 입시제도에서의 편제화	96명	37%
2	교육청지원, 일본어 교사 한목소리, 동아리지원, 행사개최, 전국모임개최, 다양한 수업자료 공유, 지역연구회 활성화, 전국정보네트워크, 정보공유 및 활용, 학교간 학생교류, 문화컨텐츠교류강화, 교사 연수강화, 연수를 통한 정보교환	27명	10%
3	교사의 수업 방법 및 자세의 전환, 교사 개인의 노력 필요	7명	3%
4	대학교수의 고교일본어교육 활성화 노력의 제고, 적극적이며 단결적인 모습 필요	5명	2%
5	교육정책변화, 교과부 경제 논리(외국어전용실을 일본어 과목도 사용하게 요구)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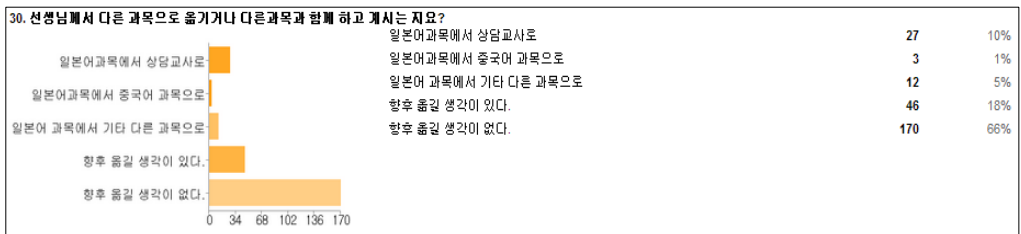
6	외국어관련학과 교수의 싸움자체	2명	
7	대입수능합격, 불합격으로 과목시험을 볼 수 있게 마련 혹은 가산점 주기	2명	
8	일본과의 교류활성화	1명	
9	교수법 연구	1명	
10	일본어교과 관리자 추신, 장학사가 많이 나오면 위상이 올라감	1명	
11	일본어 특기가 있는 학생은 일본어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1명	
12	적극적인 진로선택 및 지도(국내 대학 및 일본유학)1명	1명	
13	수업의 내실화	1명	
14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1명	
15	일본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1명	
16	중·고교 과목 연계성 강화	1명	

총 258명 중 150명(58%)이 답을 했으며, 현재의 입시와 관련되는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다.(96명 37%) 그 뒤를 이어 학교 간 교류와 교사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것이 27명(10%)이었다. 기타 좋은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활성화 방안들이 일회성 조사의 결과에 머물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개선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능한 한 조직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 방안들의 적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4-7 일본어교사의 전과 희망 여부 조사

2009개정교육과정과 맞물린 일본어교과의 많은 변화속에 일본어교사의 신분상의 불안정 상태의 정도를 알아보는 “선생님께서 다른 과목으로 옮기거나 다른 과목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라는 질문에 [표20]과 같이 답하였다.

[표20] 교사의 전과 혹은 과목겸임 여부



170명(66%)이 옮길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 외의 88명(34%)이 다른 과목으로 옮기고 있거나, 향후 옮길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충격적이다. 응답교사 중

1/3에 해당하는 일본어교사가 신분의 불안을 느껴 다른 과목으로라도 교직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 응한 258명의 일본어교사 중, 다른 과목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가 120명(46%)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고등학교의 일본어교육의 위기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들 88명(34%) 중에 27명(10%)이 외국어교사가 비교적 용이하게 부전공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를 하고 있거나 상담교사로 자리를 옮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 5. 나오며

이상에서 2009개정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인한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의 위축이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습부담 경감과 창의적 인재 양성, 자율권 확대를 통한 핵심 역량 강화와 학교의 다양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인 집중이수제와 제2외국어의 생활·교양 영역화등으로, 대학입시중심 운영의 궤에서 벗어나기 힘든 고등학교의 어려움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어려움 속에 일본어교과의 경시가 뚜렷이 가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고등학생에게 제도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하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일본어교육 관계 환경 또한 좋지 않다. 정부의 제2외국어 확대, 독도문제 등에 관한 한·일양국의 대립, 일본의 작년 3·11 대참사와 맞물린 원전사고, 일본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저평가 등으로 인해 일본이반현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관계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일간의 대립해소가 양국의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정치 지도자들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양국의 선린우호를 희망하며, 일본어교육의 위기 해소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라도 빨리 일본어 교육 환경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과교육의 정상화의 중심에 2009개정교육과정의 재개정이 있다고 생각되며, 전인교육으로서의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의 중심에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있다고 생각된다.

## 【参考文献】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2009개정교육과정』
- 조문희(2011) 『한국 일본어 교육사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혁(2011) 「中等日本語教育の活性化 方案에 관한 考察」 『日本文化研究』 제 38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525-54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2008) 『중등학교 제2외국어/한문 교과서의 운영 실태 분석』
- 한미경(2006) 「고등학교 일본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 2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宋晚翼(2010)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動向と課題 -21世紀に入ってからの学習環境の明暗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第47輯、韓国日本文化学会、pp11-26

## 要 旨

本論文は、「2009年度改正教育課程」施行後の高校の日本語教科の運営の実体と問題点を明らかにする。その手順としては、高校の日本語教育の歴史と「2009年度改正教育課程」の特徴を概観した後、全国の日本語を開設している高校1017校に勤務する日本語教師を対象にして実態調査を行った。(258校が回答し、回答率は25.4%である) アンケートによる実態調査の結果は次の六つに大別できる。

1. 回答した教師の内訳は、女性163人(63%)、男性96人(37%)で、教職経験20年以上の教師が46%と半数に近い。また、公立高校が169校(66%)、私立が89校(34%)である。そして、一般系高校が212校(82%)を占めている。

2. 第二外国語の開設関連の現状としては、日本語教師が1人の学校が158校(61%)、2人の学校が81校(31%)であった。第二外国語科目の数において1つだけの学校が101校(39%)、2つの学校が141校(55%)であった。第二外国語の中で選択の生徒の人数が最も多い科目は、日本語で231校(90%)である。その次に中国語が24校(9%)で、中国語の選択の生徒の人数が増えている現象を見せている。

3. 「2009年度改正教育課程」施行以来、日本語科目の学級が増加しているのは26校(1%)、変動なしが120校(50%)、減少が92校(39%)である。増加より減少の高校が著しい。約4倍に至る。日本語教育の衰退が見られるところだ。人気のある中国語も日本語ほどではないが、同様の傾向が見受けられる。

4. 「日本語Ⅰ」を集中履修制で実施している高校は145校(56%)で、「日本語Ⅱ」を集中履修制で実施している或いは予定の高校は76校(29%)である。集中履修制の賛否の調査においては、反対側が207人(80%)にもなる。反対の理由として、教科間の不均衡と不平等の助長による現場の教師の間の差別の恐れがあるが82人(40%)で一番多い。集中履修制において日本語教科運営の最も大きな問題点として、生徒の集中力及び学習意欲の低下が予想されるが137人(53%)で、一番多い。「2009年度改正教育課程」の問題点としては、学校の教育課程の編成と運営の自主権の拡大によるもとと国・英・数中心の集中授業の運営の蓋然性である(143人、55%)等と答えている。やはり大学入試に備わざるを得ない高校の現実が浮彫りになっているようだ。

5. 高校の日本語教育の最も緊急の課題としては、大入修学能力試験と各大学の入試選考において、第2外国語の比重を高めること(95人、37%)と、第2外国語の生活・教養領域から外国語領域に分離すること(78人、30%)等と答えている。これらは高校の日本語教育の活性化の方案としても位置づけられている。

6. 日本語教師の転科希望の可否の調査では、衝撃的に、88人(34%)が、他の科目に移したり、今後転科の考えがあるを答えている。日本語教育の危機と言わざるを得ない。

以上で、「2009年度改正教育課程」が学習負担の軽減と創意的な人材育成などを目指しているが、集中履修制と第2外国語の生活・教養領域化によって高校の日本語教育の環境が悪くな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今後学校教育の正常化と大入試制度の改善が真剣に求められている。

キーワード：高等学校の日本語教育 2009改正教育課程 集中履修制  
第2外国語の生活・教養領域化 日本語教育の課題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